“수비부터 득점까지” 김태군, KIA ‘안방 지킴이’ 증명

포수 부문 수비력 지표 1위
후배들에게도 정신적 지주
“지금 좋은 성적 후배 덕분”

꾸준함과 묵묵함으로 버틴 시간이, 결국 KIA 타이거즈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KIA 안방을 지키고 있는 김태군은 단순히 포수를 넘어선다. 투수진을 조율하는 조용한 조율자이자, 후배들에게는 경기장 안팎을 관통하는 정신적 뿌리다. 베테랑으로서 무게감은 물론, 실력으로도 리그 정상급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김태군은 3회 선두타자 김호령의 출루 이후 곧바로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안겼다. 이후 8회말, 팀이 5대 5 동점 상황에서 만든 2사 만루 기회에서 다시 한 번 방망이를 휘둘러 역전의 2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결과는 극적인 역전승. 주연은 단연 김태군이었다.

올 시즌 김태군의 타율은 0.241. 통산 타율 0.249(3311타수 825안타)에 비해 다소 낮지만, 그를 설명하는 데 타격 지표는 중심이 아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수비 지표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9일 오전 기준 ‘수비 관련 득점 기여도(RAA)’ 지표에서 김태군은 +4.31을 기록하며 리그 포수 1위에 올라 있다. 블로킹 능력은 4.13으로 역시 1위. 도루 저지도 10개로 리그 상위권이다.

RAA는 포수의 수비력을 수치화한 대표 지표다. 투수가 던진 공을 어떻게 블로킹하느냐, 바운드된 공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처리하느냐, 주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잡아내느냐 등을 반영한다. 이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건 곧 ‘리그 최고의 수비형 포수’라는 타이틀과 같다.

부산고를 졸업한 그는 2008년 2차 3라운드 전체 17순위로 LG 트윈스에 입단했다. 2013년 NC 다이노스가 창단하며 특별 지명을 받아 유니폼을 갈아입었고,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1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NC의 주전 포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8~2019년 군 복무 기간, 양의지가 NC에 새로 자리잡으면서 입지는 흔들렸다. 이후 삼성, 그리고 KIA로 유니폼을 바꿔 입으며 커리어 후반기를 이어가고 있다. 팀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어도 김태군은 항상 ‘자리를 지키는 포수’로서 팀의 중심을 꿋꿋이 지향했다.

KIA에서의 활약은 특히 눈에 띈다. 지난 시즌에도 포수 부문 RAA 6위를 기록하며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생애 첫 만루포와 우승에 기여했다. 팀을 조용히 이끄는 고참의 품격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태군은 “지금의 좋은 성적은 후배들 덕분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야구를 하면서도, 계산 없이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이 너무보기좋다”고덧붙였다.

포수는 ‘수비의 중심’이자 ‘게임의 감독’이라 불린다. 김태군은 그 상징성을 실력과 태도로 모두 구현해내고 있다. 단순히 좋은 포수를 넘어, 좋은 선배이자 좋은 팀 동료로서 KIA의 중심을 잡고있다. 김태군은 오늘도 기록보다 태도, 외침보다 뒷받침으로 KIA의 안방을 지키고 있다.

민현기 기자

KIA 타이거즈 김태군이 지난 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롯데 타자의 홈 주루를 저지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시청 이재성, 전국육상 남자 200m 金

20초78… 대회 신기록
이민정은 여자 200m 3위

광주시청 이재성(왼쪽)과 이민정.

광주광역시청 이재성이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이재성은 지난 8일 전북 익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78로 신민규(서울시청·20초91), 박민수(서울시청·21초00)를 제치고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도쿄세계선수권을 준비하는 고승환(광주광역시청)은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청 이민정은 여자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민정은 24초62를 기록, 신현진(포항시청·24초43)과 전하영(가평군청·24초53)에 이어 세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해남군청 이은빈은 여자 100m에서 11초80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 신기록(종전 11초87)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이은빈은 3개 대회 연속으로 11초 8대의 기록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진도군청 남보하나는 여자 3000m 장애물에서 10분58초5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

‘부상 악재’ KIA, 최형우도 이탈… 전반기·올스타전 결장

오른쪽 햄스트링 부종 소견
8일 주루 도중 허벅지 통증 교체

프로야구 시즌 전반기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KIA 타이거즈에 부상 악재가 또 덮쳤다. KIA의 중심 타자 최형우(사진)가 부상으로 남은 전반기 경기들과 올스타전에 불참한다.

KIA 관계자는 9일 “한마음 정형외과를 포함해 병원 2곳에서 초음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우측 햄스트링 부종 소견을 받았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까지 치료에 집중한 뒤 후반기 복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최형우는 지난 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회초 공격 도중 1루에서 3루까지 전력질주한 뒤 대주자 이창진으로 교체됐다.

당시 최형우가 3루로 향하는 주루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 뒷 근육에 이상을 느껴 통증을 호소했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했다는 것이 KIA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최형우는 4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1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기록했다.

민현기 기자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 교류전, 오늘 완도서 열린다

장애인체육 상생과 화합을 위한 ‘2025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교류전’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남 완도에서 열린다.

이번 교류전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20명이 참여해, 체육 교류를 넘어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 이어진 교류전은 지역 장애인체육의 연대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는 ‘완도 방문의 해’에 맞춰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실내 체육활동과 지역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0일에는 좌식배구와 명랑운동회 등 체육 프로그램이 열리며, 폭염을 고려해 모든 일정은 실내에서 진행된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완도양치유센터, 완도수목원, 완도타워 등을 방문해 지역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는 일정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육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장애인체육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 확대, 저변 강화 등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D-100 본격 준비 돌입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종목별 예선대회를 시작으로 대표선수 선발과 하계 강화훈련 등 체계적인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광주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50개 전 종목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격, 펜싱, 궁도, 태권도 등 종목별 예선대회를 열고, 8월까지 대표선수 선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어질 하계 강화훈련을 통해 전력 보강에 나선다.

특히 이번 하계훈련에서는 훈련비 지원과 건강 상태 점검을 병행하고,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경기력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FC가 지난 8일 전남대병원에서 ‘폼폼푸린 유니폼 경매’로 조성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의 따뜻한 패스… 산리오 유니폼 경매 수익 전액 기부

전남대병원에 700만원 기부

광주FC가 경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에서 ‘폼폼푸린 유니폼 경매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이정효 감독 및 주장 이강현 선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홈 경기에서 선보인 산리오 캐릭터즈의 ‘폼폼푸린’ 특별 유니폼을 선수들이 착용하고, 경기 종료 후 이를 경매로 판매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경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700만원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전액 기부됐으며, 해당 기금은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동일 대표이사는 “시민구단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광주FC의 소중한 기부 깊이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남대병원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